장애아동 위한 10년 불사, 결실 맺다

승가원 12월 17일 안암동서 행복마을 준공

승가원 10년 숙원불사
230억 소요, 5000명 동참
생활 · 치료 시설 포함해
영화관, 자립시설 눈길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승가원 행복마을 전경. 지하 1층 지상 4층의 한옥 양식으로 지어졌다.


승가원 행복마을 내 장애아동 영화관 시설.

장애아동들을 위한 불교계 보금자리인 승가원 행복마을이 10년간의 숙원불사 끝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원종)은 12월 17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승가원 내에서 '승가원 행복마을 준공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준공법회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발원문 봉독과, 승가원행복마을 건립 경과보고, 봉행사 및 격려사, 축사, 감사패 수여 등이 진행된다. 이어 축하공연과 함께 내외빈들의 승가원행복마을 라운딩도 이어질 예정이다.

승가원 행복마을은 현재 승가원 장애아동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다. 1998년 설립된 승가원은 불교계 대표 장애아동 보호기관으로 보호자 아래서 양육이 어려운 장애아동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며 치료와 사회적응 등을 하고 있다. 현재 50여 장애아동들이 스님과 불자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승가원에서는 2000년 후반부터 시설 노후화로 인한 불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공간이 부족해 재활프로그램조차 순번을 정해 근근이 이뤄졌다. 이에 승가원 측에서는 2009년부터 행복마을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불사금 마련에 들어갔다.

행복마을 불사는 전체 면적 1400여 평 규모에 230억 여원이 투입되는 대형불사인 만큼 어려움도 많았다. 복지기관이지만 행복마을 불사는 국고 지원없이 후원자들의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전액 충당했다. 건립불사가 진행된 10년 동안 약 5000여 후원자들이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수억에 이르는 불사금을 보시했다.

이런 가운데 2011년 첫 부지 매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며 본격적인 불사가 시작됐다. 이후 설계업체 선정과 건축허가, 시공업체 선정 등 불사 과정이 진행됐으며 2017년 11월 착공식 후 2년간 공사를 통해 준공법회를 진행하게 됐다.

승가원 행복마을은 복지기관 중 특별하게 현대식 한옥으로 지하1층과 지상4층으로 이뤄져 있다. 장애아동들을 위한 생활실과 세탁실, 식당 등 기본 생활공간에 이들의 학습과 치료를 담당하는 음악활동실과 미술치료실도 들어선다. 영화관과 카페와 같은 문화공간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자립훈련 시설도 조성된다.

출소를 앞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로 일상생활의 다양한 부분을 직접 체험하고 보호자 없이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밖에 장애인 기본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와 자동문을 비롯해 생활시설 곳곳에서 장애아동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내부가 디자인 됐다.

많은 이들의 정성이 모인 불사인 만큼 승가원 행복마을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 바로 불사 동참자 5000여 명을 위한 후원 감사 장소다. 이 곳에는 정성을 보내준 후원자들의 이름이 명판에 새겨져 전시된다. 고액후원자들은 특별히 승가원을 형상화한 나무에 나뭇잎에 이름이 새겨진다.

준공법회를 앞두고 승가원 이사장 원종 스님은 "승가원 행복마을의 새로운 건립은 정말 많은 이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기에 가능했다"며 "장애아동들이 우리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부처님 자비사상의 하나다. 앞으로도 장애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제31회 포교대상 시상식 성료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12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31회 포교대상 시상식은 단순히 상을 주고 받는 자리가 아닌 불법 홍포를 서원하는 장이 됐다. 이날 시상식장은 포교대상 대상을 수상한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과 윤청광 대한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뿐만 아니라 공로상의 서광사 주지 도신 스님, 석불사 주지 경륜 스님 등 수상자들을 비롯해 전국에서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불자 500여 명으로 가득찼다.

이들에게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신심과 발원으로 원력을 굳게 세우고 자신의 여건에 맞는 수행법을 선택해 정진하면 우리 시대 갈등은 화합으로 바뀌고 희망의 불교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상자들의 수상소감은 저마다 지역포교에서의 감사를 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포교와 전법에 대해 불자분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제7회 인성함양 국제 스키캠프

내년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불교스카우트연맹(연맹장 성행)은 내년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포천 베어스타운 리조트에서 제7회 인성함양 국제 스키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스키캠프에는 한국, 타이완, 말레이시아 등에서 150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가한다. 겨울철 흰 눈과 별빛의 어우러짐 속에서 정서를 순화하고, 심신을 단련하며, 법우들 간의 우의를 다지고, 청소년 국제 포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스키 용구 착용법, 넘어지는 법, 일어나는 법, 초보 활주법, 방향전환, 활강, 프르그 파렌, 프르그 연속, 한쪽 밀어내기, 프르그 연속돌기 등이 있다.

행사 첫날에는 국제친선의 밤, K pop 공연 등도 준비된다. 2박 3일 숙식비, 수송버스비, 스키강습비, 스키장비 렌탈료, 리프트탑승료, 상해 보험료를 포함한 참가비는 16만원이다.

참가 신청은 2020년 1월 13일까지 불교스카우트연맹으로 하면 된다.

(02)722-9033 노덕현 기자



"불교복지 20년, 천태종도 성장"

천태종복지재단(대표이사 문덕, 천태종 총무원장)은 12월 4일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대표이사 문덕 스님을 비롯한 재단 이사와 명예시설장, 산하 복지관 · 요양원 시설장, 류한우 단양군수, 김영주 단양군의회 의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문덕 스님은 치사에서 "천태종의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간존중 윤리경영을 통해 개개인의 삶의 질 개선과 행복을 영위하는 복지국가 건설에 노력하는 복지재단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사진은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과 복지재단 장기근속자들의 기념촬영 모습이다. 윤호섭 기자

군불교 중흥 위한 '계룡대 법당' 건립 돌입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51주년 군승의 날 공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군승 파송 51주년을 맞아 군불교 중흥을 위한 계룡대 법당 중창불사 계획을 공개했다.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11월 28일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제51주년 군승의날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불자대중은 계룡대 영외법당 신축불사에 대한 기대와 원만회향을 기원했다.

법회에는 초대 군종특별교구장을 지낸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 스님을 비롯해 전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과 전국의 군법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군종교구에 따르면 계룡대 호국사는 2020년 착공해 2021년까지 10월까지 대지면적 2만5455㎡(약 7770평), 연면적 2330㎡(약 700평) 규모에 지상 3층으로 지어진다. 특히 계룡대가 군 지휘부란 상징성이 있는 곳인 만큼 이 곳에 군불교 역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전시관을 함께 지어 군불교를 알리는 역할도 담당한다. 법당은 250명이 수용가능한 대법당, 다목적홀과 함께 공양실과 회의실 등이 들어선다. 또 어린이 전용공간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종무소, 군종병 숙직실 등도 건립된다. 불사 비용은 조계종 백만원력결집 기금 60억원과 군 예산 40억원, 군종교구 자부담 등을 통해 충당한다.


계룡대 영외법당 조감도.

그동안 계룡대 호국사의 영외법당 마련은 군불교의 과제로 꼽혔다. 각종 보안절차로 인해 신행활동의 어려움이 컸기 때문이다.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은 "계룡대 육해공군 영외법당 건립의 원력하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2020년 지리산엔 '불교 배움터' 열린다

실상사, 1월 '겨울 배움의 숲' 개최

지리산 실상사에 불교 배움터가 마련된다.

실상사는 내년 1월 '겨울 배움의 숲 강좌'를 열고 초기불교 전문가인 각묵 스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 대흥사 일지암 주지 법인 스님에게 초기불교 · 중도 · 화엄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배움의 숲의 문을 여는 것은 각묵 스님이다. 스님은 내년 1월 1일부터 5일까지 '초기불교 이해'를 주제로 초기불전에 담긴 불교의 교학과 수행을 전한다.

도법 스님은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중도의 눈으로 본 붓다의 삶과 깨달음'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도법 스님은 중도의 눈으로 본 깨달음, 중도, 팔정도, 연기의 개념을 공부하고, 실제 그에 맞춰 사는 일상을 함께 논의한다.

법인 스님은 '해체와 상상'을 주제로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강의를 진행한다. 법인 스님은 교설을 바탕으로 생각의 탄생, 상상과 화엄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담론을 나눌 예정이다.(063)636-3031 신성민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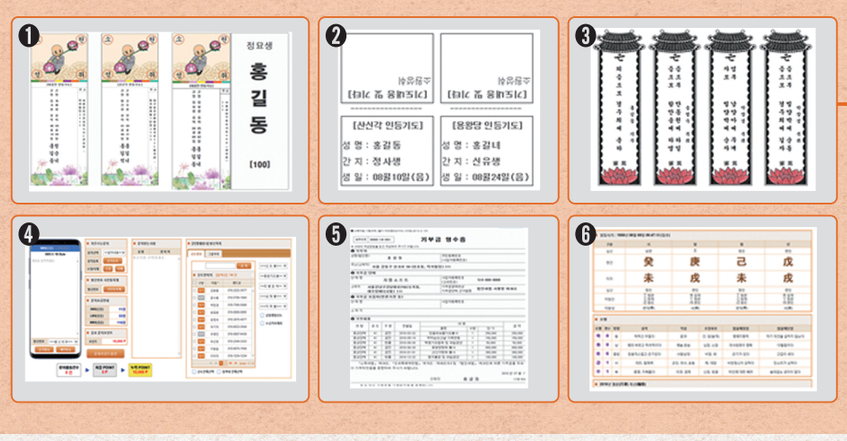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GmSoft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